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교회소식

◆ 알림

1.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다섯 번째 세례식인 10월 세례(세례, 입교, 개중, 유아세례)식이 10월 15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10월 1일(주일)까지
-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10월 8일(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 \*입교와 유아세례 문답: 10월 8일(주일) 오후 1시 10분 609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기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넘치는 은혜 풍요한 헌신 ”

■ 요한복음 15:5-17

가을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함이며(16절),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임(마 7:19,20)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고민이기도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실하는 삶의 기본 조건이 주님과 우리의 생명관계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수여자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면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인격적 결합이며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로운 일치와 연합의 관계입니다. 4절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의 문자적 해석은 ‘나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문 열고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요 1:12, 계 3:20 등의 말씀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실 것과 같습니다.

2.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

본문은 전반적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농부이신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가지에 병충해가 많으면 결실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오염은 삶의 결실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3절에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말(λόγος[logos])’은 ‘예수의 복음(요 1:1)’ 자체를 의미합니다. 삶에 참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은총은 기도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은총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초대입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것인 그 사랑’이란 의미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 친구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주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13)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친구 삼을 것이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신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 생명을 주고받을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한 책임감으로 희생하는 삶을 가르치신 숭고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할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1)Imputation [책임전가] 2)Duty[법률적 의무] 3)Responsibility [책임감]입니다. 모두가 우리 현실에 대하여 책임전가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책임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한 책임을 수행하셨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책임적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오윤걸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이민호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이민호 장로			

입례송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	시 100:1-2...	인 도 자
* 찬 송 .....	14(1, 4절)...	* 신앙고백 .....		다 함 께
* 신앙고백 .....		* 경배와 찬양 .....		찬 양 팀
* 성서 교육 .....	54(시 126)...	기 도 .....		말 은 이
* 송 영 .....	4 .....	환영과 축복 .....		찬 양 팀
찬 송 .....	79...	교회 소식 .....		인 도 자
성경 봉독 .....	요 15:5-17...	성경 봉독 .....	요 15:5-17...	말 은 이
성도의 교제 .....		찬 양 .....		찬 양 대
봉헌 .....		설 교 ...“넘치는 은혜 풍요한 헌신”...		손달익 목사
* 봉헌송 .....	634...	결단의 기도 .....		다 함 께
* 봉헌기도 .....		봉 헌 .....		다 함 께
찬 양 .....		* 봉헌기도 .....		설 교 자
새가족 환영 .....		* 파 송 .....		찬 양 팀
설 교 ...“넘치는 은혜 풍요한 헌신”...	손달익 목사	* 축 도 .....		설 교 자
* 찬 송 .....	399...	* 후 주 .....		찬 양 팀
* 축 도 .....				
* 주기도송 .....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현종필 목사	윤성남 집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43:1 .....	인 도 자
찬 송 .....	292 .....	다 함 께
기 도 .....		말 은 이
찬 송 .....	544 .....	다 함 께
성 경 .....	행 18:5-1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	현종필 목사	
* 찬 송 .....	291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박현영 권사
II 오후 7시	조원영 목사	박순복 권사

성 경 ..... 왕하 8:7-2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격동하는 시대의 은총 ” ... 손달익 목사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 · 신아령  
설 교 ..... 손달익, 장석남 목사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 찬 양 팀  
설 교 ..... 조원영 목사

##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홍혜란  
설 교 ..... 손달익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